

부림절의 기원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

부림절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살해하려던 음모에서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부림절이란 말은 이때 던졌던 주사위의 일종을 가리키는 '부르'라는 말에서 왔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살해할 달로 아달월을 얻었고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살해할 음모를 꾀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유대인을 살해하려던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할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림절이다.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부림절로 지킨다.